

예수 탄생 | 이남규 루카(1931-1993), 300x100cm,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1989, 해화동성당

**입당송** |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 이사 60,1-6

**화답송**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

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 에페 3,2.3.5-6

**복음환호송** |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 마태 2,1-12

**영성체송** |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필리핀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미사가 끝나면 어린이들은 성당 마당에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비가 오면 옷통을 벗고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햇살이 나오면 옷을 말려 입고는 다시 또 신나게 놀았습니다. 해가 저물면 저는 어린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어야만 했습니다. 시골길이라 땅이 험하고 어두워서 위험했으니까요. 랜턴을 하나씩 쥐여주고 서로 손을 잡고 어두워진 길을 걸어가는 데, 중간중간 물웅덩이가 있었고 가축들이 싸놓은 배설물도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두세 시간이 훌쩍 넘어갔어요. 그러니깐 그 아이들은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을 걸어 성당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다음 주일 미사에 참석한 아이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걸어와 미사를 드리고 뛰노는 아이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정말이지 소중한 아름다운 하느님의 아이들이었어요.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의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비행기도, 자동차도, 기차도 없는 험한 길과 다리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해보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산과 고개, 넓은 벌판을 넘어야 했을 거예요. 그토록 메시아 예수님을 뵈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겠지요. 한편 헤로데 왕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

이려고 마음먹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극단적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천상의 것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값진 선물을 드리고 기쁘게 돌아가지요. 반면 헤로데 왕은 천상의 것이 아닌 지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에게 지상의 권한을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에 대한 욕심에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가득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일이란 매우 쉬운 일이지요. 긴 여행을 할 필요도 강을 건너거나 언덕을 넘을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감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뵈 수 있고 손수 예수님의 몸을 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성당에 나오기까지 사소한 귀찮음의 언덕을 넘어야 하고 미움의 강을 건너야 하며 시기, 질투와 같은 일상적인 장애물들 또한 이겨내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천상이 아닌 지상의 달콤한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여러 장애물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선 동방박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넘고 넘어 마침내 우리 곁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정성 어린 경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실 테니까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을 찾아 나선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마태 2,10)

그분을 찾아가는 길, 끝없이 밤으로 채워진 미지의 맹랑함 속에서 반짝이는 별은 안도와 기쁨을 줍니다. 우리라는 깨지기 쉬운 소재의 스테인드글라스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색유리블 통과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빛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복음과 함께 성전과 내 마음에 아름다운 새 세계를 고요히 창조하고 있습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말씀의 이삭

## 새로워진 눈으로 발견하기



김정은 로사 | 방송작가

20대 중반 유럽 여행을 갔을 때,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두근거리며 마음이 벅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 미술관이나 전시회에 가면 도슨트부터 찾게 됐고 없으면 오디오 가이드라도 꼭 챙겨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교회 안에도 신앙을 바탕으로 성화와 성물을 설명하는 도슨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5년 전, 후보 공지를 보고 가톨릭미술해설사 양성 과정을 접하게 됐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도슨트 1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명동성당에는 귀한 성 미술 작품이 많습니다. 1800년대 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세운 성전 건물부터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청동 문, 성당 안팎에 있는 성상과 성화 모두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보물들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해 너무 몰랐던 저의 무지가 크게 다가왔고, 그런 신앙이 담긴 작품을 새롭게 보게 될 때마다 하느님의 섭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주옥같은 내용을 외우기만 해도 벅찼던 저의 부족한 설명에도 참가자들은 집중해서 경청하고 호응해 주셨고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슨트로서 겨우 걸음마를 떼려는 그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 도슨트들은 봉사 직분을 잃은 채 그대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제안으로 매주 온라인에서 만나 해설사로 부족했던 부분, 더 알고 싶은 내용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이 거리두기가 끝날 거란 믿음과 희망을 품고 우리는 서양미술사와 현대미술, 한국 천주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스터디에서 다만

지식을 얻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공동체로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친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도슨트 한명 한명의 영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서서히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던 지난해 가을, 가톨릭 미술 해설 프로그램도 드디어 재개되었습니다. 외우기에만 급급하고 긴장했던 처음의 모습보다는 다시 해설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선마이크 스위치를 켜짐(ON)으로 올리며 첫인사를 할 때는 여전히 무척 떨리지만 50분의 여정 동안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기쁨을 느낍니다. 성령을 통해 1898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운 명동성당의 건축 이야기가, 박해 시대를 살던 선교사와 순교자들의 삶이 담긴 청동 문이, 빛으로 새긴 성경인 스테인드글라스가, 두 팔 벌린 예수상이 신자들의 마음 안에 새롭게 다가가기로 기도합니다.

**육식보다는 채식을 생활화합니다**

한껏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농지의 83퍼센트가 가축 사육에 사용되고 있으며,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58퍼센트가 동물성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됩니다.

-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후속 장기 사목 계획을 위한 특별 사목 교서 실천 지침 중 -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 ‘나는 믿나다.’라는 고백의 무게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어렸을 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착한 일을 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굳게 믿었고,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서 먹는다니던 어머니의 말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산타클로스는 사실 엄마·아빠이고, 어두일미인 생선은 정말 값비싼 생선 얘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하거나 속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말 슬픈 일은 점점 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진위를 속으로 따지고 있는 자신을 보는 일 같습니다. ‘믿음’이란 어찌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성당에서 고백합니다. 그것도 직접 본 적도 없는 하느님을, 2천년 전에 사셨다고는 하나 지금 나와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살다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청년 예수라는 분을, 그리고 성부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감’이 잡히지 않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이라고 말할 때는 그래도 은근슬쩍 무리에 묻어가는 듯해서 부담이 좀 덜한데 정말로 “나는”이라고 주어를 붙여서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나의 고백의 무게는 얼마나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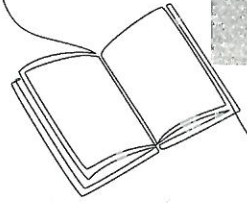
우리말에서 신경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저는 믿나다.”로 시작하지만, 본래 신경의 첫마디는 “나는 믿

나다.”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신앙과 이성>이라는 회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은 믿음 위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주는 음식을 의심없이 먹으며, 사람들 사이의 진실한 대화와 관계는 신뢰 안에서 가능하고, 정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 분야의 기초 지식이 옳다는 믿음 하에 학문적 연구를 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지식을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이 충분한 확실성과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신뢰에 가득찬 자기 참여에서입니다.”(신앙과 이성 32항) 믿음은 인간의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일에서, 학문 영역에서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1+1=2이다.’를 믿는 것,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 실제 사건임을 믿는 것, 우주 망원경이 찍은 천체 사진을 보면서 우주에 말머리성운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을 품고, 우리의 신앙고백의 ‘말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 고백의 내용들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인간은 믿음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주보에 이어집니다.)



#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예수님은 홀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셨고, 세관장이었던 인물도 부르셨습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그분께서는 12명의 사도만 파견하시지 않고 일흔두 명의 제자도 복음 선포를 위해 함께 파견하십니다.(루카 10,1-12 참조) 이를 볼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갔는지 복음 선포의 여정을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사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가 안티오키아,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과 사도들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성령에 관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오로의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전하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과 그들을 향한 박해, 교회의 확장 속에서 벌어진 내부적 갈등 해결 등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일곱 봉사자를 뽑아 식탁 봉사를 맡긴다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하며, 사도들은 크고 작은 교회의 문제들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  
**사도행전**  
 예수님에게서 파견된  
 사람들의 행적을 담아 놓은 책  
 사도들의 중요한 설교의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  
 ”

또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중요한 설교의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도들 파견의 목적은 바로 부

## 1. 사도란 누구인가요?

사도[ἀπόστολος(apostolos)]라는 말은 ‘파견하다, 보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ἀποστέλλω(apostello)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파견된 자’, ‘보내진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견된 사람이라면 그를 파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파견한 분은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사도행전이란 예수님에게서 파견된 사람들의 행적을 담아 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사도들 개개인의 행적을 수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예루살렘에서 갓 태어나고 활동하기 시작한 교

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 날 성령강림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자로 거듭났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의 기쁨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설교문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해 줍니다. 즉 ‘하느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고’(사도 2,36) ‘그분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사도 5,31)



#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도영애 막달레나 수녀 | 응암동성당(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교황님의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 권고를 따르고 있는 한국 교회도 벌써 2년째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회에서도 올해 '지속 가능한 지구'라는 주제로 실천적인 방법에 대한 연수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도 이 연수에 참여하면서 행동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를 소임지인 응암동성당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던 차에, 주임 신부님의 지지와 신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실행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레지오 훈화를 <찬미 받으소서> 회칙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개개인의 마음 안에서 생태적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길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다짐해 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저희 본당에서 실천 중인 활동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1 세대별로 구성된 환경 지킴이 팀

이 함께 모여,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들을 논의 합니다. 또, 분야별로 선정된 환경 동영상을 매주 1회씩 미사 후

에 상영하여 해당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신자들의 의식 변화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2 구역 신자들이 시작한 천연 삼베 실로 수세미 뜨기 활동이 본당 전체로 빠르게 보급,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설된 뜨개 모임은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수세미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중은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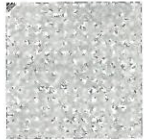
3 원두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친환경 커피 설거지 비누를 제작, 보급하여 주방세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장은 날짜 지난 주보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을 세트로 제작해 단체 선물로 보급하고, 무인 판매대를 개설하여 신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이엠(EM) 용액을 구역 신자들이 직접 만들어 보급하였고, 이엠 용액과 친환경 재료를 배합하여 이엠 주방 세제도 만들어 수질오염

을 줄이고 배수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용기를 직접 가져와서 멀어가는 방식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5 본당 내 카페를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일체 제한하고,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여 만든 비누를 카페에서 다시 순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작한 제품들이 본당 내 곳곳에서 활용되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환경 지킴이 팀을 중심으로 생태 영성 교육에 집중하여 초등, 중고등부 주일학교 동영상 교육과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리는 문화에서 끝까지 사용하는 문화로 전환하고,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지속함으로써 하느님 사업에 동참하는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당에서 하는 활동들을 가정과 이웃으로도 전파하여 '녹색 예언자적' 사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2020년 감독\_장이머우

영화칼럼 

영화 '원 세컨드'

# 1초의 무게를 체감하는 삶



구분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보좌신부

전 속도의 결과로 나의 삶을 아우르는 시간이 1초씩 늘거나 줄 수 있다는 사실처럼 말합니다.



거장 장예모 감독의 영화 <원 세컨드>는, 1초라는 시간에 담긴 무게를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비추어 그림니다. 1960년대 중국, 영화 시작 전 상영되는 뉴스 영상에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딸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은 장주성(장역분)은 두 달에 한 번씩 영화를 상영하는 외딴 마을의 영화관으로 향합니다. 영화관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마주한 필름 도둑 류가녀(류 하오춘 분) 사이의 인연, 영화 필름이 훼손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 필름을 복구해 내는 과정, 어렵사리 상영되는 영화를 감상하게 되자 행복에 겨워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영상 속에서 단 1초 동안 등장하는 딸의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는 주인공의 모습 등이 뽐어내는 극적인 분위기가 영화를 마주하는 관객의 호흡을 가쁘게 합니다.

주님의 공현은 주님께서 몸소 인간의

시간 안에 종속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시간의 창조자로서 시간을 초월한 주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인간이 짊어진 시간의 무게를 몸소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탄과 공현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몸소 짊어지신 시간의 무게를 가능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우리의 삶을 둘러싼 시간을 우리가 더욱 무게감 있게 마주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쉽 없이 흐르는 1초의 시간을 체감해봅시다. 별다른 감흥 없이 사소하게 흘러보았던 시간이 극중 영상 속 딸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는 장주성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묵직하게 체감됩니다. 그렇게 영화 <원 세컨드>를 통해서 제 삶을 아우르는 1초의 시간을 지구 자전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현상의 무게처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와 같이 시간의 무게를 체감하며 1초의 시간을 인식하셨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 시간은 완벽하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내핵과 외핵, 바다, 대기 등의 움직임에 따라 항상 약간씩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식적인 국제 시간 측정 방식에 사용되는 원자시계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불변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자전과 원자시계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그 차이를 보정해야 합니다. 국제지구자전 좌표국(ERS)은 두 시간 체계 사이의 차이가 0.9초 이상이 되면 '윤초'를 적용해 인위적으로 시간 오차를 해소합니다. 윤초가 적용되는 해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감싸는 시간에 1초가 더해지거나 빼질 수 있습니다.

눈 한번 깜박할 새, 혹은 한 번의 들숨과 날숨이 교차하는 순간 정도인 1초는 너무나도 미약하여 금방 사라지고 말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1초의 무게를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시속 1,660km인 지구 자

**오늘(1월 8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월 13일 서상필 요아킴 신부(31세)
- 1998년 1월 14일 전용선 요한 신부(52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 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9일(월)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백민관(테오도로)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백민관(테오도로) 신부님께서 지난 12월 27일(화)에 선종하셨습니다. 백민관 신부님은 1927년 황해도 장연군에서 출생하여 1952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군중, 가회동성당, 성신 중·고등학교 교사, 성신대학(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조교수, 가톨릭대학 신학부(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가톨릭대학 신학부(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학장, 가톨릭대학 신학부(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돈암동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다시 가톨릭대학 신학부(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학장과 교수로 사목하셨고, 2004년 원로사목사제가 되셨습니다. 12월 29일(목)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교구청 알림**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매주(금) 12시15분  
 곳: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6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3월3일~11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이주형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테레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52차 미사 1월1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용진 본당, 해주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현장교육 안내**

때: 매월 두번째·네번째(토) / 3월부터 교육 재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회비: 커플당 3만원  
 사목국 홈페이지(<http://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현장교육' 통해 사전 접수  
 현장접수 불가, 선착순 60커플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약혼자 주말**

내용: 건강하고 행복한 혼인생활 준비  
 대상: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혹은 혼인 1년 미만의 신혼부부 / 회비: 커플당 32만원  
 때: 203차 3월17일~19일 · 204차 5월19일~17일(금-일)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http://www.samok.or.kr)) '약혼자주말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선착순 20커플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시순부활 묵상곡을 위한 성음악 합창 심포지엄(성음악위원회)**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본당, 청년, 장년 등)  
 때: 1월28일(토) / 접수 및 등록: 1월3일(화)~20일(금)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http://www.casm.co.kr)) 참조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중림동)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

**생명위원회**

1) 1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월9일(월) 11시, 명동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2)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곳: 1월10일 13시30분~16시30분 매월 두번째(화),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23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혼인 예약 안내**

7월~12월: 1월13일(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홀  
 추첨은 한 커플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 문의: 02)774-1784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http://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6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곳: 1월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갤러리1898 휴관 안내 / 문의: 02)727-2336**

갤러리1898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1월3일(화)부터 2월7일(화)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순교자현양회 합창단 남성단원(추가) 모집**

대상: 음악을 좋아하는 62세 이하 교우, 매일 2회 평일 오전 미사 참여 가능하신 분  
 연습: 매주 월요일 19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활동: 순교자현양회와 시복시성기원미사 성가봉헌, 정기연주회 등  
 문의: 010-3898-3408 단장, 02)727-2527 사무국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상담 봉사자 모집  
 지원대상: 가톨릭상담심리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가톨릭상담봉사자 3급 자격증 소지자, 심리학 · 상담심리 학사 이상, 타 전공자 중 영성상담봉사를 꼭 하고 싶은 신자 / 문의: 02)727-2126  
 파견본당: 서울대교구 가재울 · 시흥동 · 신내동 · 혜화동 예정 / 모집마감: 1월27일까지(2월3일 합격자 통보)  
 신청안내 및 방법: 홈페이지(<http://scoutpc.catholic.or.kr>) 참조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수제 묵주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공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어른초등·중학·검정고시반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어른초등·중학과정·검정고시반·영어회화반 / 02)727-2471

**30대를 위한 신앙통독(대면·비대면 병행)**

때: 3월~11월 (일) 16시~18시 / 회비: 3개월에 10만원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대면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지도) 프란치스코회

**서울성모병원 일반인 호스피스 교육**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때, 곳: 2월8일(수)~9일(목) 9시~17시,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 1월8일~31일 선착순 접수  
전화 접수 후 입금바랍니다 / 문의: 02)2258-1901, 1904  
회비: 5만원(마감 후 취소 불가), 당일 접수 5만5천원  
계좌: 우리은행 1005-101-712022 서울성모병원

**온라인 '성가정생활캠프' 가족 신청**

우리는 소년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부모일 수 있고,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실의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일 수 있습니다  
성가정생활캠프에 접속하시고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되찾아 신앙의 활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담당: 안충석 신부  
함께하는 아: 임병현 신부, 최대환 신부, 성영 교수  
홈페이지: www.holyfamilycamp.com  
문의: 010-8760-2899 안충석 신부

**모집**

**도미니칸 평신도회 회원 모집(재속회)**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만 63세 이하 성인 남녀  
문의: 010-2740-1606 성소 담당

**서울대교구국악성가 우리소리합창단 단원 모집**

국악성가와 함께 봉사할 단원 모집 / 문의: 02)868-1133  
연습: 매주(월) 19시, 전철 7호선 강남구청역 4번 출구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30대 남녀 가톨릭 신자 / 010-6814-6010  
활동: (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오디션: 1월15일(일) 오후 5시, 명동대성당  
준비: 지원서 및 가톨릭성가 1곡 또는 자유곡 1곡  
네이버 검색-로고스합창단-입단문의

**명동대성당 영어미사봉사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일) 오전 9시 영어미사 전례봉사 및 기본적인 영어회화가 가능한 청년 교우 / 문의: 010-2990-5481  
2월3일(금)까지 이메일(mdemsv@naver.com) 접수  
서류: 지원서(명동대성당 홈페이지-성당 소식-단체모집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PDF) / 면접 일정 추후 안내

**2023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시는 견진 받은 16세 이상 교우  
지원서 교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308호  
2월28일까지 접수 / 문의: 02)779-3881(근무일: 토·일·월), 010-9600-6358 작은형제회, 02)793-2070 곤벤투알, 010-7261-8233 카푸친, 010-4171-0898 청년회(만 35세 미만)

**미사**

**한국희망재단 후원회 신년미사** / 문의: 02)365-4673  
때, 곳: 1월18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1월19일(목) 12시, 가톨릭회관 3층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22  
때, 곳: 1월9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1월14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안내**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나답게 살기 위한 필요한 자기인식 작업-수지애니머그램: 매월 셋째주(금)(토) 오전 10시~오후 4시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 문의: 010-9146-7654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떼제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대상: 청년, 청소년과 동반 부모 / 문의: 02)744-0840  
때: 매월 세번째(토) 2월18일·3월18일·4월15일  
오후 4시(1월은 설 연휴로 쉬)  
곳: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문제, 우울감, 불안감, 공황장애, ADHD 자기이해, 타인이해, 관계이해를 위한 성격검사  
교육: 카페(cafe.daum.net/caritas501) 참조

**직원모집**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정규직 직원 모집**

분야: 사회복지사 1명 / 채용시까지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지원서 접수

**의정부교구 행신1동성당 관리장 모집**

분야: 관리장 1명(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임용 가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자격증 사본(소방·가스안전 및 기타 자격증 우대) / 채용시까지 접수(본당 홈페이지 참조)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사무원 모집**

저희 수도회에서 함께할 사무원(회원관리 등)을 모집합니다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채용시까지 이메일(johnofgod\_kr@naver.com) 접수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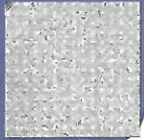
분야: 성령쇄신 전국협의회 사무장(1명) / 02)777-3211  
곳: 가톨릭회관(명동) / 대상: 가톨릭 신자로 사무 전산업무 및 회계 가능자(성령쇄신기도회 유형협자)  
1월10일까지 이메일(ncssa@hanmail.net) 접수  
서류: 이력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1월14일(토)	수녀원(돈암동)	010-5033-9302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1월27일(금)~29일(일)	수도원(평창동)	010-6608-321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2월5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온라인 서울주보

#온라인서울주보 (홈페이지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카카오톡채널)  
#가톨릭튜브 #알려드립니다.1분



cc.catholic.or.kr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서울주보"를 입력하세요.

서울주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서울주보 지면(PDF) 외에도 각 분당에서 발행하는 본당면과 교회 메시지, 교회 소식,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 주보의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음악·과학·건축·미술

[과학] 과학, 철학 그리고 신앙의 합(합)

과학, 철학 그리고 신앙의 합(합)

종교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며, 철학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과학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공지사향 2021 '명동, 겨울을 밝히다'

교회메시지 [메시지] 2023년 교구장 새해 메시지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서울주보"를 입력하세요.

서울주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교회 소식과 각종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 '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seoul\_jubo

375 게시물 2,519 팔로워 10 팔로잉

서울주보  
종교 기관  
신주교 서울대학교  
linktr.ee/seoul\_jubo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팔로우 방법: ① QR 스캔 → ② 팔로우 클릭하세요!



팔로우

메시지

추천!



가톨릭튜브

유튜브 검색창에 "가톨릭튜브"를 입력하세요.

가톨릭튜브를 구독하시면, 가톨릭 문화를 즐겁고 유익하게 전하는 다양한 코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튜브 채널 -> Shorts

서울주보에 소개된 글을 짧은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는 '알려드립니다'

서울주보 유튜브 구독 방법: ① QR 스캔 → ② 구독 클릭하세요!



가톨릭튜브  
@catholictube  
구독자 2.01만명

추천!

구독



서울주보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주보"를 입력하세요.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 소식을 모바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신주교 서울대학교 서울주보 발행입니다.  
(본당주보, 메시지, 알림)

소식

대기 중인 게시물 (임시저장 2)

서울주보

[서울주보 2427호] 2022년 12월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구독 방법: ① QR 스캔 → ② 노란색 버튼 클릭하세요!



서울주보  
한구 10,557

추천!

+

제2262(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장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설날 합동위령미사 안내

1월 21일(토)	오후 6시 (합동위령미사)
1월 22일 (주일) 설날	오전 7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오후 2시 (주일학교통합미사)
	오후 6시 (주일미사)

※ 설날 당일 합동위령미사에는 연도 및 분향이 있습니다.

※ 설날합동위령미사신청은 1월 18일(수)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 오전7시미사 (미사후에 연도 바칩니다.)  
오전9시/11시미사 (미사전에 연도 바칩니다.)

◎ 유아세례 : 1월 8일(주일) 오후 4시 30분.

### ◎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목)은 주님봉헌축일로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하는 초를 축복합니다.  
매 미사 중에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	가정초 접수
1자루	8,000원	3,500원
신청	성당 사무실	성물방

※ 접수마감 : 1월 29일(주일)

### ◎ 남성울드레야

일시 : 1월 15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병자영성체 : 1월 20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 1월 여성울드레야 회합은 설연휴와 겹치게 되어 쉽니다.

### ◎ 중고등부 주일학교 피정

주제 : '숨표'

일시 : 1월 27일(금)~29일(주일)

장소 : 사도들의 모후 수도회 피정의 집

대상 : 예비 중1~고2

문의 : 프란시스 선생님 (010-5826-5785)

### ◎ 평일미사 반주자 모집

봉사시간 : 평일 06시, 10시 미사

문의 : 아네스 대표 (010-4538-5665)

◎ 주님의 성찬에 함께 할 전례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프리모 단장 (010-9526-3217)

◎ 구역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 육수를 판매합니다.

일시 : 1월 14일(토) 오후 3시~15일(주일)

가격 : 떡국떡(1.8kg) 10,000원

만두(김치/고기) 14,000원, 육수 12,000원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결산 보고서(양식은 사무실에 비치)와 회계장부 및 영수증을 1월 29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 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06	923 (43.8%)	880 (41.8%)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후 2022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헌금 (12월 26일~1월 1일)

강영자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주	.....오만원
진현수	.....오만원	이미진	.....오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익 명	.....사십육만원
익 명	.....일십만원	강병숙	.....일십만원
윤영자	.....일십만원	익 명	.....오만원
이명순	.....일십이만원	한숙희	.....일십만원
이현학	.....일십만원	김건민	.....오만원
정수진	.....		.....칠만원

### ◎ 우리들의 정성(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교무금.....26,925,000원

주일헌금.....6,484,010원

입당	487	봉헌	511, 210, 332	성체	182, 496	파견	100
----	-----	----	---------------	----	----------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 하리이다